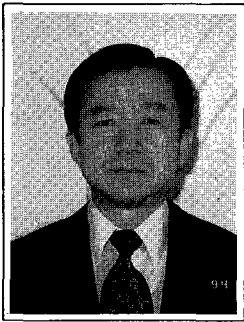


월성 1호기의 운영 현황과 과제

박 중 원

한전 월성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소장



유네스코(UNESCO)가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한 신라 천년 고도인 경주시의 동남 쪽 바닷가에 신라 제30대 왕으로 삼국 통일의 위업을 이룩한 문무대왕의 호국 영령이 서려 있는 동해의 푸른 바다를 마주보며 자랑스럽게 우뚝 서 있는 월성 1호기는 우리 나라 최초의 중수로 원전으로 국가 전력 사업의 최일선에서 전력 생산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월성 1호기가 속해 있는 월성원자력본부에는 현재 가동중인 1호기(67

만8천kW), 2호기(70만kW)와 건설 중인 3·4호기(각 70만kW) 등 총 4기가 있다.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83년 4월 상업 운전에 들어갔으며, 2호기는 97년 7월 1일 상업 운전을 개시하였으며, 3호기는 금년 7월에 상업 운전으로 들어가고, 4호기는 99년 7월에 상업 운전 예정이다.

월성 1호기는 상업 운전 이후 줄곧 원전 이용률에 있어 세계의 정상급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미 85년, 91년, 93년도 등 3회에 걸쳐 원전 세계 이용률 1위를 달성하였으며, 90년 및 92년에는 세계 2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룩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에 발표된 97년도 세계 원전 이용률 기록에서는 102.1%로 가동중인 세계 원전 427기 중 세계 2위를 달성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원자력발전소의 이용률이란 원자력발전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

하였는가를 평가해 주는 척도인 동시에, 발전소의 운영 관리 기술 수준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원자력발전소는 수많은 기기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심한 기술과 빈틈없는 운영 관리를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이용률이 높은 것은 그 발전소의 전반적인 운영 기술 수준과 운전 및 정비 기술력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월성 1호기는 비록 캐나다로부터 원전 기술인 설계와 기기를 도입하였으나, 적극적인 자세로 운전·정비 및 관리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켜 온 결과, 발전소의 운영 관리 기술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할 예정이다.

월성 1호기의 운영 능력은 이용률 및 고장 정지면에서 원전 도입국인

캐나다보다 앞서고 있으며, 세계의 원전 선진국인 미국·일본·프랑스와 비교하여도 뒤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87년 원자력발전운전협회(INPO)의 안전 점검 수검, 89년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점검 수검 및 97년도의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기술진으로부터 안전 점검을 받은 결과, 운영 관리 기술 및 안전 수준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작년 97년도 월성 1호기의 이용률 세계 2위 기록 달성은 우리 나라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낸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값진 결과라 할 것이다.

작년에는 월성 1호기의 안전 운영과 동시에 시공이 수개월 지연되어 있었던 월성 2호기의 시운전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가 있었지만, 전직원의 단합된 힘과 그 동안 축적되어 왔던 기술력과 관리력을 총동원한 결과, 공기 준수가 어렵다고 전망되었던 월성 2호기의 시운전 업무를 무사히 완료하여 적기에 상업 운전을 개시함으로써, 월성 1·2호기 종사자 모두에게 뜻깊은 한 해로 기억되고 있다.

그리고 월성 2호기의 상업 운전 개시로 우리 나라 원전 설비 용량이 1천만kW를 넘어섬으로써, 세계 32개 원전 보유국 중 10번째의 설비 용량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표 1〉 월성 1호기 및 세계 원전 평균 이용률

구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월성 1호기	91.0	85.9	91.1	86.9	100.8	82.6	83.7	80.97	102.1
세계 평균	64.8	65.7	67.8	67.3	69.6	70.2	71.6	72.9	72.16

단위 : %

국내적으로는 국가 외환 위기를 맞이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월성 1호기의 이용률 102.1%로서 세계 2위 달성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특히 저렴한 전력 공급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체의 생산 원가 저감에 기여하였다는 자부심과 함께 작금의 외환 위기 극복에도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외적으로는 중수로 원전의 종주국인 캐나다에서 오타리오 하이드로사가 기술 인력 및 자체 경영 관리상 문제로 인하여, 운전중인 원전 19기 중 7기를 가동 중단할 계획임을 발표하여 세계적으로 중수로를 운영하는 국가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월성 원자력발전소는 캐나다 온타리오 하이드로사와 같은 문제점없이, 세계적 수준의 운영·정비 및 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소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온타리오 하이드로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훈으로 삼기 위해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온타리오 하이드로사 점검 결과 보고서(IIPA) 내용을 월성 원자력발전소에 적용하여 상태를 비교·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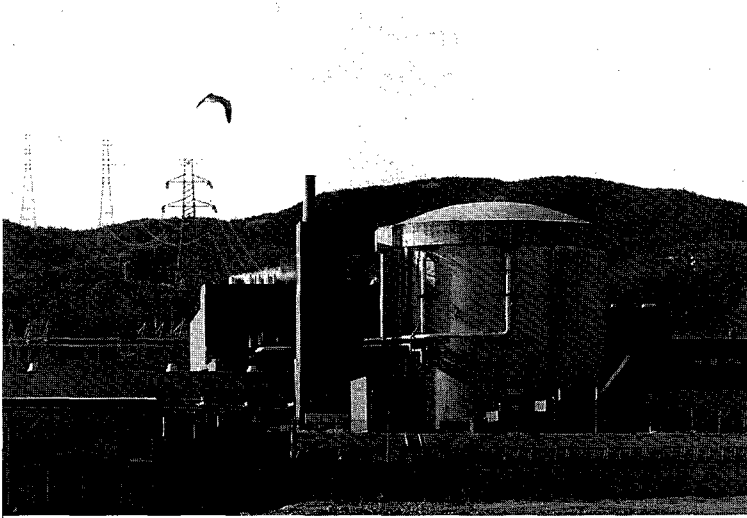
하여 본 결과, 근본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자체 분석되었으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월성 1호기의 높은 이용률 달성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룩한 성과이기 때문에 더욱 값지게 여겨지며, 월성 1호기를 세계적인 최우수 발전소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안전성 향상, 운전 성능 제고, 기술 개발 및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다음은 그 동안 월성 1호기에서 발전소 이용률 향상을 위해 종합적으로 추진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코자 한다.

발전 설비의 최적 운영

발전 설비의 최적 운영이라 함은 설비를 설계 조건 내에서 전출력으로 고장없이 다음 계획 정비시까지 연속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운전, 정비, 기술 지원, 및 경영 관리 등 전문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조화롭게 일이 수행되어야 하며, 관리자를 포함한 전직원의 합심된 노력이 필수 불가결하다.



월성 1호기. 월성 1호기의 운영 능력은 이용률 및 고장 정지면에서 원전 도입국인 캐나다보다 앞서고 있으며, 원전 선진국인 미국·일본·프랑스와 비교하여도 뒤지지 않고 있다.

월성 원전에서는 이를 위해 전직원 이 동참하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고 있다.

첫째 무고장·무정지 운전 달성, 둘째 완벽한 계획 예방 정비 수행 및 계획 예방 정비 기간 단축, 셋째 종사자 방사선량 최소화, 넷째 중수 소모량 최소화 등이다.

월성 1호기는 이와 같은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서 정비 품질의 확보를 통한 완벽한 정비, 운전 조작 실수 완전 배제, 운전 정비 요원의 현장 순시 점검 강화, 담당 설비에 대한 책임 의식 고취, 취약 설비 개선 및 노후 설비 일소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특히 무고장·무정지 운전을 달성하기 위해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노

력을 집중적으로 경주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 발전 정지 가능 요소의 집중 관리
- 인적 실수 예방 활동의 지속적 추진
- 설비 조작, 정비 전 기술 검토 및 파급 영향 검토 철저
- 불시 정지 원인 분석 및 후속 관리 철저
- 주요 기기의 운전 주기에 따른 교체
- 운전 실시 운전 및 정비 요원의 현장 순시 점검 강화

원전 안전성 확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은 단순히 안전하게 설계되고 높은 수준의 품질

과 성능을 보유한 기기나 설비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즉 유형의 안전 설비와 무형의 안전 의식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얻어지는 총체적인 결과이지 한 측면만 강조될 수 없는 것이다.

완벽한 설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형의 안전 의식 확보를 위한 노력을 철저하게 추진할 때 비로소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월성 원전 종사자 누구나 규정과 원칙의 준수가 철칙임을 깊이 인식하고, 안전의 생활화를 기하였으며, △ 안전 운영 규정 철저 준수 △ 안전 관련 각종 시험 및 점검 철저 수행 △ 노심 건전성 분석을 통한 노심 안전성 확보 및 결합 연료 발생 최소화 △ 운전원 비상 대응 능력 제고 △ 안전 의식 교육 강화 및 원전 안전의 날 행사를 통한 원자력 안전 의식 확산 △ 운전 및 정비 품질 보증 활동의 강화 등 안전성 향상 및 설비 신뢰성 제고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한 구체적인 활동 사례로는 원자로 보증 정지 기간중 안전성 확보 지침 수립 시행, 계획 예방 정비 후 기동 전 점검표 및 안전 지침 내용 강화, 임시 상태 허가 사항 관리 철저, 정상 가동 중 필수 안전 변수 감시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 변수 감시 강화, 운전원

자체 교육 제도 개선을 통한 운전원 운전 능력 제고, 비상 운전 절차서 전면 개선, 고장 및 불시 정지의 근절을 위한 취약 설비 도출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설비 신뢰성 확보

월성 1호기는 상업 운전 이후 15년의 장기간 운전으로 향후 기기의 성능이 초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으나, 엄격한 예방 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경주할 경우 발전소 수명 기간 동안 충분히 허용 가능 수준의 설비 신뢰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취약 설비를 개선하고 노후 설비를 교체할 뿐만 아니라, 경년 열화 부품의 철저한 발굴을 통해 고장 발생 이전에 예방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

최근 월성 1호기에서 안전성 제고와 설비 신뢰도 향상 차원에서 △ 압력관 가터 스프링 위치 교정 작업 (SLARette) △ 노내 중성자속 검출기의 신형으로의 전면 교체 △ 증기 발생기 튜브 세관 정밀 검사 △ 예비 발전기 (SDG #1, 2) 및 비상 발전기 (EPS #1, 2) 분해 점검 △ 고압 터빈 및 저압 터빈 분해 점검 △ 발전기 분해 점검 등 주요 설비들에 대해 정밀 점검 또는 설비 개선을 수행하였다.

또한 기계 · 전기 · 계측 · 핵연료

분야 기기의 점검 및 철저한 책임 정비로 기기의 신뢰성을 향상시켰으며, 설비 순시 점검 체계 개선으로 기기의 고장 징후 조기 발견 조치 체계를 구축 · 운영하고 있다.

정비 프로그램 개선 운영

중수로형인 월성 1호기는 천연 우라늄과 중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수로에 비해 계통 설비가 다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설비를 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통별 특성에 맞는 철저한 설비 정비 프로그램을 수립 · 운영함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다.

계통 설비별 특성에 맞는 정비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 설비별 운전 및 정비 이력 관리 철저로 기기의 성능 상태를 파악하여 적기에 점검 및 정비를 수행하고, 주기적 기기 교체로 고장 발생에 의한 불시 정지를 철저히 배제하였다.

또한 설비별 정비 절차서 개발로 정비의 표준화 · 규격화를 이루었고, 정비 품질 프로그램과 정비 공정을 개선하여 정비 기간을 단축하는 데 노력하였을 뿐 아니라, 설비별 중장기 정비 계획을 수립 · 운영함으로써 장기 운전에 따른 경년 열화가 예상되거나 징후가 나타나는 설비 및 기기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및 교체를 추진함으로써 설비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94년도에는 원자로 압력관 건전성 검사(CIGAR) 및 3개 채널 교체에 이어 95년 및 96년도 계획 예방 정비 기간에는 핵연료관 118개에 대한 지지환 위치 교정 작업(SLAR), 원자로 건물 종합 누설률 시험, 기능이 저하된 노내 중성자속 검출기 교체 등 대규모 작업들을 공정 관리 개선으로 차질없이 수행하였다.

또한 계획 예방 정비 관리 개선을 통한 정비 품질을 확보키 위해 기계 · 전기 · 계기 · 핵연료 장전 설비 분야 등의 정비 절차서 및 시험 절차서에 대한 내용 보완 개선, 주요 핵심 정비 단계에서의 입회 · 확인 철저, 책임 정비 정착을 위한 의식 개혁 및 정비원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강화를 추진하였다.

작업 공정 개선과 관련해서는 작업 진행 우선 순위 조정 및 개선, 주공정과 병행 작업 도출, 계획 예방 정비 항목 중 경상시 가능한 정비 항목에 대한 경상 정비 항목으로의 전환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철저한 정비 품질 확보

월성 1호기는 최상의 정비 품질 확보를 위해 정비 협력 업체와 공동으로 국제 품질 보증 규격인 ISO 9000의 품질 시스템 요소보다 더욱 엄격한 품질 보증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발전소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 2〉 동일급 중수로 연도별 중수 소모량 비교

단위 : 톤/년

연도	구분	월성 1호기	포인트레프로우 (캐나다)	켄트리Ⅱ (캐나다)	엠탈세 (아르헨티나)
90		3.4	3.9	3.8	3.5
91		3.4	2.6	3.4	9.0
92		3.4	3.3	4.5	3.5
93		2.7	2.2	4.1	3.9
94		4.0	N/A	N/A	N/A
95		4.2	3.4	10.7	4.0
96		3.6	N/A	N/A	N/A
평 균		3.5	3.1	5.3	4.8

〈표 3〉 월성 1호기의 최근 5년간 액체 방사물 방출 현황

단위 : mCi

연도	93	94	95	96	97	비 고
방출량	1.5	1.2	4.6	0	0	설계치 : 2,600

아래와 같다.

첫째, 한 주기 무고장 무정지 운전(OCTF) 달성을 위한 설비 품질 보증 프로그램으로는 증장기 운영 및 정비 계획서와 가동중 검사 계획서 및 장주기 점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정비 및 시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자체 품질 보증 방침으로 삼고 있다.

특히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발전소 완전 분해 정비(Overhaul) 후 정비 기술 정산서 작성시 미비 사항을 도출·분석하여 결과를 관련 프로그램·절차서 및 각종 계획서에 피드백 함으로써 정비 기획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둘째, 지속적인 종사자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 계획에 의거, 국내외 전문 교육 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토록 하며, 각종 워크숍 및 세미나에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참석 후에는 보고서 작성 및 전달 교육 시행 등을 통해 타 직원에게도 전파되도록 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셋째, 정보 수집·분석 및 적용을 가능한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외 가동 원전 및 원전 관련 국제 기구(IAEA, COG 및 WANO 등) 가입으로 원전 운영에 따른 일련의 우수 사례 및 실패 사례 자료 등을 적극 입수하고 심층 검토하여 유사 고장 사례의 재발 방지에 노력함과 아울러, 우리 발전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외부 기관에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개선하는데 능동적으로 임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의 원전 전문가들에

의해 실시된 캐나다 온타리오 하이드로사의 경영 진단 보고서를 입수, 분야별로 심층 비교·분석하고 필요 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 운영 및 정비 품질의 향상을 도모코자 전 종사자들이 노력하고 있다.

엄격한 중수 관리 및 수질 관리

월성 1호기는 83년 4월 22일 준공 이후 현재까지 잘 훈련된 직원들이 계통 수질을 엄격히 관리한 결과, 증기발생기 튜브 누설 사례가 한 번도 없었으며, 98년 2월 증기발생기 튜브 와류 탐상 시험 결과에서도 건전성이 입증되었다.

아울러 계통수에 대한 최적의 pH 유지 운전으로 부식 생성물 발생을 억제하여 증기발생기 내 슬러지 퇴적량을 최소로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터빈 계통 수질 관리 종합 전산 체계를 구축하여 수질 관리의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원자로 계통의 수질도 정화 계통 성능 유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부식 생성물을 적기에 제거함으로써 방사성 부식 생성물 발생을 억제하여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방사선 준위를 낮추고, 계통 재질 부식에 의한 중수소 및 수소 발생량 감소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중수 누설시 회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원자로 건물 내부 구조를 개선하여 환기 계통 지역과

중수 증기 회수 계통 지역간 격리를 철저하게 하고, 중수 누설 부위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 개발한 중수 누설 탐지 설비를 적극 활용하여 누설 부위를 조기 발견 조치함으로써, 중수 누설량을 감소시켜 타 중수보다 중수 소모량을 적게 하는 등 계통 수질 관리와 중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발전소 이용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방사선 안전 관리

방사선 안전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월성 제1발전소는 그간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종사자를 보호하고 환경에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 한 예로 월성 1호기는 방사선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방법을 창안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얼음 알갱이를 이용한 방사성 삼중 수소 방호용 호흡기(‘월성형 호흡기’라 명명)이다.

세계 최초로 착안하여 개발된 이 호흡기를 이용함으로써 삼중수소에 의한 체내 선량의 점유율을 당초 30~40%에서 약 20%로 감소시켰을 뿐 아니라, 연간 호기당 약 2억원의 경비를 절감하고 있다.

현재 이 호흡기는 중수로 종주국인 캐나다원자력공사(AECL)에서 성능

시험중이며 성능이 확인되는대로 캐나다뿐 아니라 중수로 보유 국가에 관련 기술을 전파할 예정으로 있어, 우리의 방사선 방호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방사선 방호 측면만 아니라 월성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희소하며 국내에서는 한 번도 달성한 바가 없는 액체 방사물 무방출(Zero Release) 기록을 최근 2년간 연속 달성하였다.

한국전력공사의 현장 기술 개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이동형 방사성 폐액 처리 공정을 자체적으로 설계·개발함으로써 이러한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

이 장비는 96년 현장 기술 개발 우수 사례(금상)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현재 국내 타 원전에도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어 액체 방사물 방출량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철저한 방사선 안전 및 방사물 관리를 통하여 종사자를 보호하고 환경에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설비 운전의 신뢰성 확보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철저한 기준과 규정에 따라 설계·제작·설치된 설비를 고장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설비들을 운전하는 운전

원들의 인적 실수가 없도록 교육 훈련을 강화하였다.

특히 지난 96년도부터는 운전 요원들의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 실제와 똑같은 시뮬레이터를 캐나다로부터 도입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전원 재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운전 경험과 전문 지식을 두루 갖춘 운전원을 충분히 확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교육 훈련을 통하여 원전 운영에 있어 인적 실수로 인한 사고의 예방과 설비 운영의 신뢰성을 기하고 있다.

운영 기술 선진화

월성 1호기와 동형의 발전소로 비슷한 시기에 운전을 시작한 캐나다 발전소의 사례를 보면, 발전소 운영 면에서는 우리가 결코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앞서있음을 자부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작사의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극소수 핵심 기기의 정비 관리 기술이나 노심 분석 기술 등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월성의 자체 기술력을 향상시켜 기술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체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술연구원과 현장 기술 개발 제안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벤치 마킹(Bench Marking)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다



월성 1호기의 핵연료 장전. 월성 원전은 발전 설비의 최적 운영을 위해 무고장·무정지 운전 달성, 완벽한 계획 예방 정비 수행 및 계획 예방 정비 기간 단축, 종사자 방사선량 최소화, 중수 소모량 최소화 등의 목표를 세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른 외국 우수 원전과 우리의 기술 수준을 비교·평가하고, 기술 선진화를 위해 달성해야 할 분야를 도출하여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기술 능력을 전문화하고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종 기술 세미나 참여를 장려하며, 여러 부서가 관계되는 주요 문제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팀 운영을 활성화하여 핵심 관계자 중심으로 해결책을 강구함으로써 발전소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기하고 있다.

맺는말

이번 월성 1호기가 달성한 원전 이용률 세계 2위 기록은 외환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국내 환경 상황에서 오늘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우리 원전이 일조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주고 있다.

특히 부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연간 에너지 수입에 막대한 외화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준국산 에너지에 속하는 원자력 발전은 저렴한 전력 공급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에너지 안보 확보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 문제, UN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비 등 지구 환경 보전 문제에서도 원자력 발전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원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은 시대적 소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시대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전직원이 합심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다.

한편으로 월성 1호기가 이번 운영 성과를 달성한 이면에는 발전소의 운영 능력 강화를 위해 발전소 운영 방침으로 '기기 체모습 찾기, 시간 아껴 쓰기, 자기몫 다하기, 작은 질서 지키기, 밝은 환경 만들기'의 「새 월성 만들기 5대 실천 항목」을 선정하여 전직원이 다함께 적극 동참 추진함으로써, 15년째 가동되고 있는 원전으로서 혹시 해이해지기 쉬운 타성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항상 새로운 마음가짐과 개선 지향적으로 설비를 운영·관리해 온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무릇 모든 일이 그러하듯 원자력발전소도 그에 소속하는 종사자들이 얼마나 발전소에 애착과 의욕을 가지고 자신의 일같이 자신의 물건같이 소중히 다루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에는 큰 차이가 난다.

우리 전직원은 물론 협력사 종사자 등 월성원자력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종사자는 모두 철저한 주인 의식으로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발전소 운영을 통해 값싸고 질 좋은 전력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매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